

HANARO

ETF Monthly

2026년 9월

반도체 말고도 잘 팔리는 게 있다?

K-뷰티, K-푸드 잘 팔리는 수출 성장주



이미지: Gemini

01. Market Focus

뉴스와 키워드로 살펴본 8월 금융시장 이슈

- 엔비디아 실적 발표 – 강력한 AI성장 모멘텀 확인
- 돌아온 Debasement Trade – 금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02. HANARO Insight

반도체 말고도 잘 팔리는 게 있다?

03. 9월 추천상품

04. HANARO ETF 수익률 TOP5

1. 뉴스와 키워드로 살펴본 8월 금융시장 이슈

엔비디아 실적 발표 – 강력한 AI성장 모멘텀 확인

- 엔비디아는 8월 26일(현지시간) 2Q 실적 발표에서 13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 AI 성장에 대한 낙관 유지 → 메모리, 광통신 등 AI 인프라 전반의 수혜 지속

엔비디아
어닝서프라이즈

엔비디아가 26일(수) 발표한 2027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매출 962.2억 달러(+106% YoY), 영업이익 637.3억 달러(+124% YoY), 주당순이익 2.22달러(+113% YoY), 매출총이익률 75%, 영업이익률 66.5%를 기록했습니다. 매출(921.7억 달러)과 주당순이익(2.1달러) 모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엔비디아는 13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AI 반도체가 포함된 데이터센터 부문이 매출 890억 달러(+117% YoY, 18% QoQ)를 기록하며 실적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PC, 차량용, 로봇틱스 칩 등을 포괄하는 에지 컴퓨팅 부문은 72억 달러(+27% YoY)를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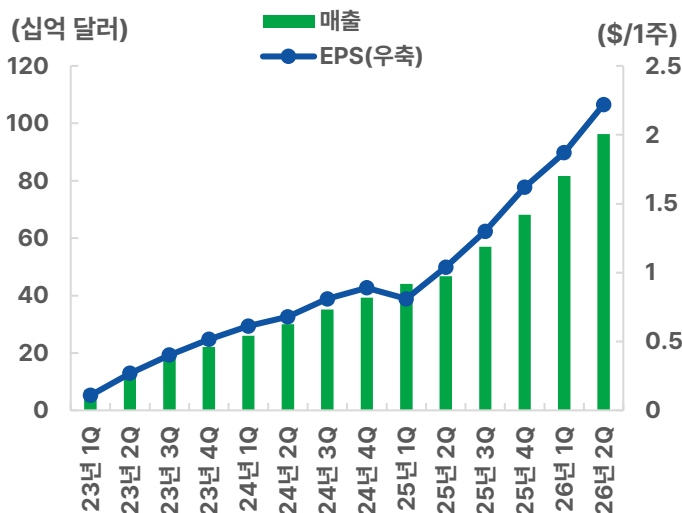
엔비디아는 3분기 실적 가이드ansom로 매출 1,080억 달러(전망치: 1,040억 달러), 매출총이익률 74%를 제시했습니다. 실제 수주 잔고 성격의 지표인 Total Purchase Commitments는 2,79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분기 1,190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AI인프라
훈풍 기대

젠슨황 CEO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AI가 변곡점에 도달했으며, AI연산에 따라 생성되는 토큰이 곧 생산성 향상과 가치 창출임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Compute is Revenue"가 증명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하이퍼스케일러들에 집중됐던 과거와 달리 현재 다수의 연구소들과 스타트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호실적이 한동안 지속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형 AI 반도체 베라 루빈은 8월 초 생산 출하를 시작한 가운데, 2027 회계연도 3분기에서 매출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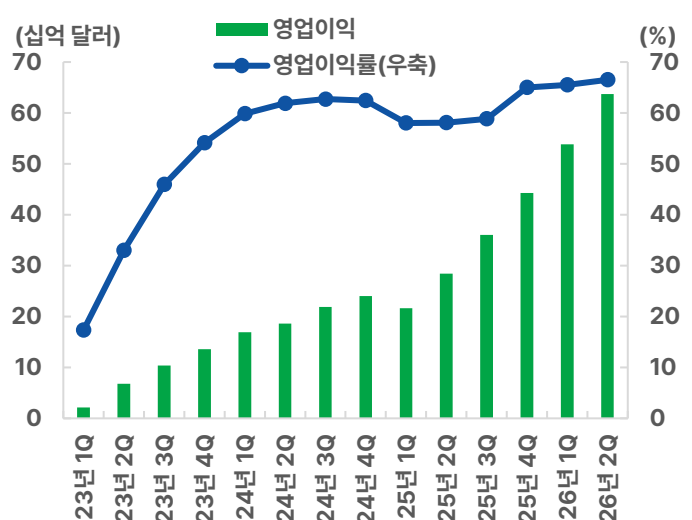
금번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젠슨 황 CEO의 발언은 그간 일각에서 제기되던 AI 성장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AI 투자 지속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재확인한 만큼, 국내 반도체를 비롯한 AI 인프라 관련 업종 전반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엔비디아 매출 및 EPS 추이



출처: Nvidia, NH-Amundi자산운용 / 기준일: 26년 8월
가로축 날짜는 실적 발표 일자 기준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엔비디아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출처: Nvidia, NH-Amundi자산운용 / 기준일: 26년 8월
가로축 날짜는 실적 발표 일자 기준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1. 뉴스와 키워드로 살펴본 8월 금융시장 이슈

돌아온 Debasement Trade – 금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 미국 재정 불안과 Debasement Trade의 귀환 - 다시 부각되는 금
- 금값 상승기에 더욱 효과적인 투자법.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미국 재정 악화
장기적 불안요인

미국의 재정구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40조 달러 근방에 다다랐으며 이제 예산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자 비용은 지난 12개월 기준 약 1.4조 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정책 결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지출과 달리, 이자비용은 금리 수준에 따라 통제가 어려운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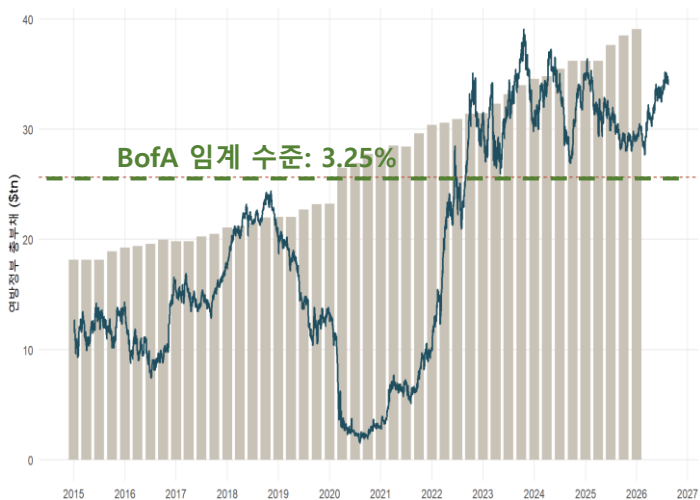
BofA는 이러한 압력이 유의미하게 완화되려면 5년물 국채 금리가 대략 3.25%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되려면 ① 인플레이션 기대의 급격한 붕괴, ② 실질적인 성장 쇼크, 혹은 ③ 침체를 반영한 자산가격 재조정 중 하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들 모두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는 전혀 우호적인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위 세 가지가 아닌 **명목 GDP 성장률을 부채 증가 속도보다 높게 유지해 부채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명목GDP는 실질성장률과 물가의 합이므로, 분모가 어느 쪽으로 커지든 부채비율은 낮아집니다. 문제는 실질성장만으로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며, 결과적으로 물가가 목표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국면이 용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인식입니다.

돌아온
Debasement
Trade

이러한 환경에서는 금에 대한 접근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금 투자 논리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헤지였다면, **이제는 통화 가치 훼손, 지속되는 자산 인플레이션, 그리고 재정 확대로 수렴하는 정책 구조에 대한 보험**으로 볼 여지가 커졌습니다. 즉, 금은 FOMC 회의 한 번이나 CPI 지표 하나로 투자를 결정하는 자산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본시장 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자산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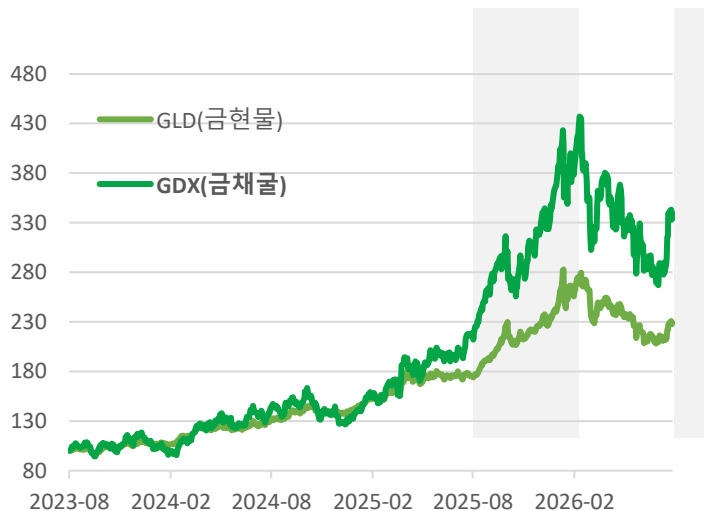
금채굴기업 투자는 금의 가치가 부각되는 현 시점에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채굴비용이 안정된 환경에서 금채굴기업의 실적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금값 상승 대비 확대됩니다. 또한 금채굴기업은 금가격을 통한 수익을 자사주매입이나 배당으로 환원하고 있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좀 더 매력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금 상승기에 자본이익과 배당수익 모두를 누릴 수 있는 HANARO 글로벌 금채굴기업 ETF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부채 추이 및 미국채 5년물 금리



출처: FRED, NH-Amundi 자산운용(26.08.18)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금가격 상승기, 금과 금채굴기업 비교



2023.08.18일자의 GLD(금현물 ETF), GDX(금채굴 ETF)의 수익률을 100으로 환산
출처: Bloomberg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반도체 말고도 잘 팔리는게 있다?

▷ 반도체 말고 잘 팔리는게 있다? K-뷰티, K-푸드, 잘 팔리는 수출 성장주

반도체에만
쏟인 시장의 관심

2026년 8월, 국내 주식시장의 화두는 여전히 반도체와 AI입니다. 투자자의 관심도, 뉴스도, 수급도 모두 반도체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관련주는 AI성장 내러티브 위에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며, 상반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두 쏠리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대표주로 집중된 과도한 쏠림과 레버리지 ETF 등 요인에 따라, 반도체 관련주는 7월 이후 급격한 변동성 확대와 가격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반도체 관련 섹터는 실적개선과 AI투자 사이클로 인해 향후에도 성장이 기대되는 영역이며, 중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섹터입니다.

그러나 한 곳에 시선이 몰리면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선을 돌려 올해 상반기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면, 반도체 옆에 뜻밖의 섹터들이 눈에 띕니다. 바로 화장품과 라면입니다. **시장이 반도체에만 집중하는 동안 K-뷰티와 K-푸드는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금번 HANARO 먼슬리에서는 '반도체 말고도 잘 팔리는 K-뷰티, K-푸드'의 최근 동향과 투자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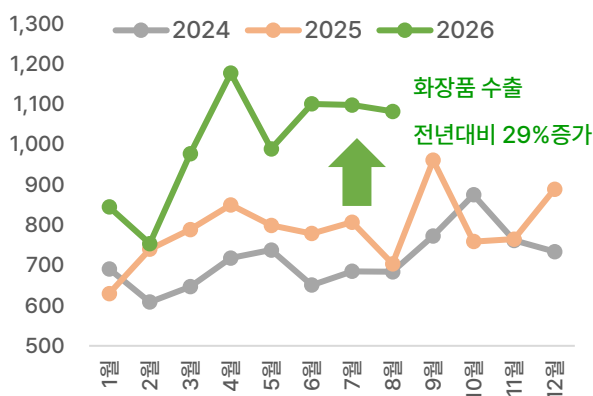
▷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K-뷰티

해외에서
잘나가는
K-뷰티

올해 화장품 수출 데이터는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 누적(1월~8월)화장품 수출액은 7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61억달러에서 29%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강한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상반기 수출실적에서 재차 드러난 부분은 K-뷰티의 주무대가 서구권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화장품 수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던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의 비중은 올해 21%까지 축소되었으며 그 자리를 미국과 유럽이 차지하였습니다. 미국은 2025년 중국을 제치고 수출국 1위에 오른 뒤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도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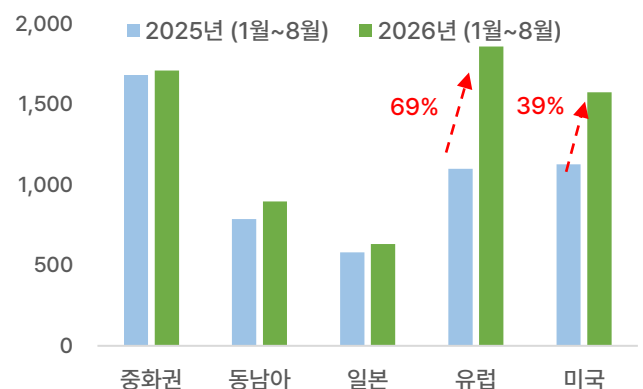
이러한 구조 변화는 단순한 수출 호조를 넘어, K-뷰티의 성장 방식이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중화권 수요에 편중됐던 구조에서는 소비 심리나 규제, 외교 관계 등 특정 변수에 영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반면 미국, 유럽으로 판매처가 다변화되면서, 이제는 한 시장이 둔화되더라도, 다른 시장에서 성장 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수출 기반이 넓어졌다는 것은 곧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월별 화장품 수출 실적 - 전년비 성장 지속



출처: 삼성증권, NH-Amundi자산운용, 단위: 백만달러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미국, 유럽 등 서구권의 수출 성장세가 높음



출처: 삼성증권, NH-Amundi자산운용, 단위: 백만달러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반도체 말고도 잘 팔리는게 있다?

K-뷰티
주류 카테고리
부상

K뷰티 수출 성장은 대기업 브랜드가 아닌 **중소 인디브랜드의 약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메디큐브, 달바, 조선미녀 등 중소 K-뷰티 브랜드가 차별화된 제품과 마케팅을 앞세워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 들어 이 저변이 **브랜드 전 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디 브랜드를 넘어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코스알엑스, 일리윤까지 각각 립케어, 선크어, 보습 카테고리에서 미국·유럽 아마존 상위권에 오르며 대형 브랜드도 본격적으로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디가 침투한 시장에 대기업 브랜드가 합류하면서, K-뷰티가 미국 시장에서 주류 카테고리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주목할 또 다른 축은 유통 채널의 변화입니다. 인디 브랜드의 초기 약진이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틱톡, 유튜브를 통한 콘텐츠 마케팅에서 비롯됐다면, **최근에는 미국 최대 뷰티 편집숍인 얼타(Ulta), 세포라(Sephora) 등 오프라인 주류 채널로 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검증된 브랜드력이 오프라인 진출로 이어지는 흐름은, K-뷰티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현지 시장에 구조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메디큐브', 라네즈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미지



출처: 어패럴뉴스

미국 '얼타뷰티월드2026'의 K뷰티 부스



출처: 한국경제

▷ 돌아온 면비디아, 라면 수출 성장세 지속

라면 역대급
수출실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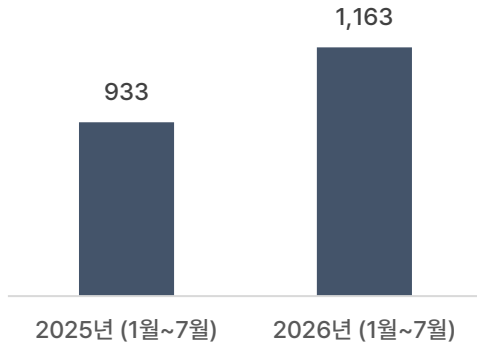
라면 수출 실적 또한 K-라면의 글로벌 인기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월~7월 라면 수출액은 약 11.6억 달러(약 1조 5천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증가**하였으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농식품 수출 증가분의 약 80%가 라면에서 나왔을 만큼, 라면은 K-푸드 수출의 명실상부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성장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 20억 달러에 근접하는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입니다.

이러한 수출 호조는 곧바로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삼양식품은 연결 매출액 7,703억원(+39%, 이하 YoY), 영업이익 1,762억원(+47%)을 기록했으며, 농심은 연결 매출액 9,561억원(+10%), 영업이익 593억원(+48%)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장을 이끈 동력이 내수가 아닌 해외라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해외 매출액은 각각 삼양식품 6,458억원(+47%), 농심 3,286억원(+31%)으로 전체 성장을 견인했으며, 삼양식품의 경우 해외 매출이 분기 최초로 6천억원을 돌파하며 전체 매출의 84%를 차지했으며, 미국, 중국, 유럽 등 다각화된 지역에서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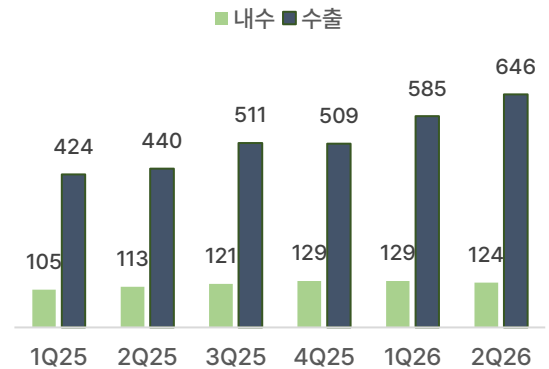
반도체 말고도 잘 팔리는게 있다?

라면 수출 실적 - 역대 최대치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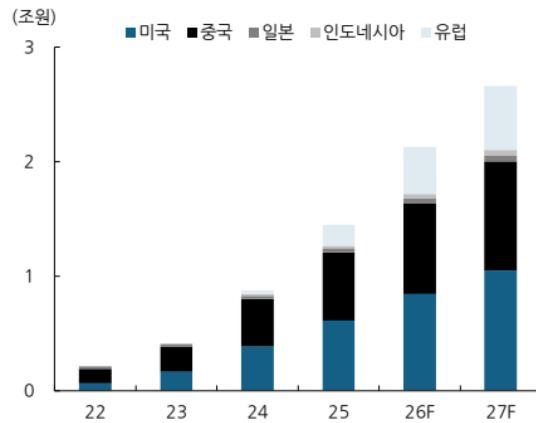
출처: KITA, NH-Amundi 자산운용, 단위: 백만달러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삼양식품 분기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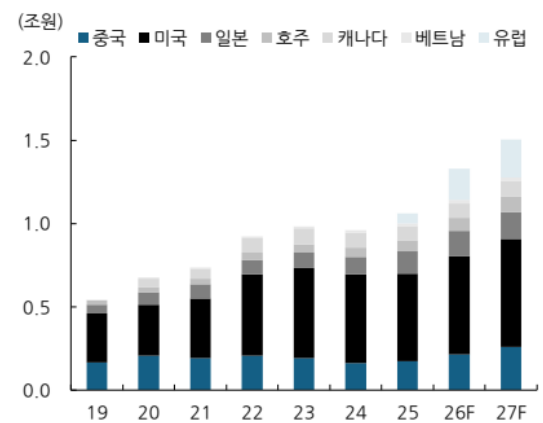
출처: 삼양식품, NH-Amundi 자산운용, 단위: 십억원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삼양식품 해외법인 실적 추이 및 전망



출처: DS증권 리서치센터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농심 해외법인 실적 추이 및 전망



출처: DS증권 리서치센터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생산능력,
유통망
확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성장 수요에 대응하고자, 업체들이 생산능력 확대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양식품이 중국 자싱시, 농심이 국내 부산 녹산에 수출 전용 공장을 증설 중이며, 오투기 또한 구미에 수출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저변 역시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미로, 유럽에서는 주요 국가로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이후 해외 판매 법인을 본격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했으며, 주요 메인스트림 채널 입점과 성장 유통채널과 협력해 전용 제품을 출시하며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생산능력 확충과 판매처 다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향후 K-라면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는 점차 가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심이 6월 11일 운영한 멕시코 캄포 마르테 페스티벌 신라면 홍보 부스
출처: 언론보도, 농심

HANARO K-뷰티 -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화장품과 미용의료를 하나로

투자포인트

한국의 새로운 수출산업 K-뷰티, 글로벌 수출 성장과 수출국 다변화

K컬쳐 시너지, 글로벌 트렌드 선도, 유기적인 산업 생태계로 돋보이는 K-뷰티의 가치

국내 화장품 밸류체인 및 미용의료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편입종목

상위 10 종목		
NO	종목명	비중(%)
1	에이피알	16.54
2	아모레퍼시픽	14.97
3	파마리서치	10.26
4	LG생활건강	9.91
5	한국콜마	9.08
6	코스맥스	8.41
7	달바글로벌	6.79
8	실리콘투	6.54
9	휴젤	4.55
10	코스메카코리아	3.29

- 기준일 26.08.28, 신한아이타스
- 상기 포트폴리오는 향후 운용전략,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재되었습니다. ETF 거래 수수료,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목명	HANARO K-뷰티						
종목코드	479850						
상장일	2024.04.16						
상품유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비교지수	FnGuide K-뷰티 지수						
위험등급	2등급(높은위험)						
수탁/사무	HSBC/한국펀드서비스						
보수	운용	AP,LP	수탁	사무	합성 총보수	증권거래 비용	
	0.40	0.01	0.02	0.02	0.5201	0.0160	

HANARO Fn K-푸드 - 세계로 나가는 K-푸드에 투자하는 ETF

투자포인트

세계를 사로잡은 K-라면, 글로벌 식품 트렌드에 부합하는 K-푸드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하는 생산공장 및 유통망 확대

변화하는 K-푸드 트렌드를 대표하는 국내 식품기업에 분산투자

편입종목

상위 10 종목		
NO	종목명	비중(%)
1	삼양식품	18.50
2	농심	16.24
3	오리온	13.15
4	CJ제일제당	12.74
5	오뚜기	6.33
6	빙그레	5.46
7	롯데칠성	4.78
8	동원산업	4.63
9	대상	4.57
10	롯데웰푸드	4.00

- 기준일 26.08.28, 신한아이타스
- 상기 포트폴리오는 향후 운용전략,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시후 1년 이내 상품으로 기타비용 미기재. ETF 거래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목명	HANARO Fn K-푸드						
종목코드	438900						
상장일	2022.08.17						
상품유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비교지수	FnGuide K-푸드 지수						
위험등급	2등급(높은위험)						
수탁/사무	하나은행/한국펀드파트너스						
보수	운용	AP,LP	수탁	사무	합성 총보수	증권거래 비용	
	0.36	0.05	0.02	0.02	0.5165	0.0414	

4. HANARO ETF 수익률 TOP5(3개월)

기준일: 2026.08.28

ETF명	투자포인트
HANARO K-뷰티 3M 수익률(세전) +33.61%	- 종목코드: 479850 - 규모: 294억 - 상장일: 2024.04.16 - 투자위험등급: 2등급 - 합성총보수: 연 0.5201% - 한국의 새로운 수출산업 K-뷰티, 글로벌 수출 성장과 수출국 다변화 - 국내 화장품 밸류체인 및 미용의료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합성총보수 연 0.5201% (집합투자 0.40% AP/LP 0.01%, 신탁 0.02%, 일반사무 0.02%, 기타비용 0.0701%) 증권거래비용 0.0160%(직전 회계연도 기준)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3M 수익률(세전) +9.91%	- 종목코드: 473640 - 규모: 796억 - 상장일: 2024.01.18 - 투자위험등급: 2등급 - 합성총보수 연: 0.4994% -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더욱 부각되는 금의 가치 - 금 가격 상승기 더욱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금채굴기업 합성총보수 연 0.4994% (집합투자 0.09% AP/LP 0.01%, 신탁 0.03%, 일반사무 0.02%, 기타비용 0.3494%) 증권거래비용 0.2238% (직전 회계연도 기준)
HANARO Fn K-푸드 3M 수익률(세전) +7.42%	- 종목코드: 438900 - 규모: 164억 - 상장일: 2022.08.17 - 투자위험등급: 2등급 - 합성총보수: 연 0.5165% -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 -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른 생산시설과 유통망 확대로 성장 모멘텀 가속화 합성총보수 연 0.5165% (집합투자 0.36% AP/LP 0.05%, 신탁 0.02%, 일반사무 0.02%, 기타비용 0.0665%) 증권거래비용 0.0414% (직전 회계연도 기준)
HANARO K고배당 3M 수익률(세전) +1.49%	- 종목코드: 322410 - 규모: 396억 - 상장일: 2019.04.23 - 투자위험등급: 3등급 - 합성총보수: 연 0.1478% - HANARO의 대표 고배당 ETF -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로 중장기 재평가가 기대되는 한국의 고배당 주식에 투자 합성총보수 연 0.1478% (집합투자 0.02% AP/LP 0.01% 신탁 0.02%, 일반사무 0.02%, 기타비용 0.0778%) 증권거래비용 0.0446% (직전 회계연도 기준)
HANARO e커머스 3M 수익률(세전) +1.02%	- 종목코드: 322400 - 규모: 359억 - 상장일: 2019.04.23 - 투자위험등급: 2등급 - 합성총보수: 연 0.5150% - 플랫폼 확장, 상품군 다양화로 꾸준히 성장하는 e커머스 - 국내 e커머스 밸류체인 대표종목에 투자하는 ETF 합성총보수 연 0.5150% (집합투자 0.36% AP/LP 0.05%, 신탁 0.02%, 일반사무 0.02%, 기타비용 0.0650%) 증권거래비용 0.0135%(직전 회계연도 기준)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신한아이타스, (레버리지, 인버스 ETF 제외)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1142호 (2026.09.01~2027.08.31)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 인사이트 및 추천 상품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 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환율변동, 자산가격 변동, 금리변동 등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ETF 거래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 추적오차 및 괴리율이 확대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전망자료는 현재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는 이 금융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본자료의 구성종목 및 비중은 추후 변동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